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탄력

진안군 진안읍 군상지구, 도내 유일 공모 선정… 총사업비 43억원 확보

진안군은 진안읍 군상지구(학천1동, 노계2동)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8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전북자치도 내 유일하게 선정돼 총사업비 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진안읍 군상지구는 전역이 진안향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약이 많고, 노후 주택과 공매가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도교통부로부터 국비 30억 원을 받고, 도비 4억 원, 군비 9억 원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 마을, 진안군 군상지구’를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군 진안읍 군상지구 전경

주요 사업 내용은 △사면보강 석축 설치, 붕괴위험 담장정비, 안심계단 정비 등 주민의 안전확보 △집수리 지원 39호, 공매가절거 4호, 슬레이트 지붕 개량 10호 등 열악한 노후주택 정비 △어르신행복쉼터 조성,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운영 등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와 해결 방안을 도출해

계획에 반영하고, 주민 주도의 추진위원회 구성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자발적인 참여와 실행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진안향교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형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나선다

진안군, 시범사업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전북자치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일 군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해 보건·의료,

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연계·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진안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협업 인력 배치 △중합관정체계 시범 적용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 김은정 지사장, 김민수 장기요양 진안운영센터장 및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장수군은 지난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6개소를 직접 방문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은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조성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아

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해 추진되며 어린이들이 시청각 자료와 만화책, 인형극을 접목하여 알레르기 질환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익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정계초등학교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사업을 확대해 현재 관내 초등학교 3개교,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1개소 등 총 6개소 50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토피유병률을 조사 후 아토피진용료선도 제공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만성 알레르기 질환은 일상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등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

무주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기여

무주군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등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개발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언어발달교실과 체험학습실에서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 코칭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한다.

‘따갈로그어’는 지난 4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27회기로 마무리됐으며 온라인학습반은 7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저학년 4명(회기당 30분, 14회기), 고학년 4명(회기당 1시간, 7회기)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6월 28일에 개강한 ‘베트남어’ 유아반은 베트남어 사용 미취학 자녀 5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시간씩 총 27회기로 진행된다. 4월 3일에 시작된 초급반(매주 화, 목요일 총 27회기, 회

기당 2시간)은 7월 10일 마무리된다. 4월 5일에 개강한 읽기·쓰기반(총 27회기)은 8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매주 토요일 1회기 당 2시간씩, 1일 2회기로 진행된다. 19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학습반은 6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저학년 회기당 30분씩 14회기, 고학년 회기당 1시간씩 7회기로 진행된다.

‘크메르어’는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6. 17.~)하며 오는 8월 1일까지 무주군에 거주하는 크메르어 사용 가정 자녀 2명을 대상으로 한다. 저학년 1명은 회기당 30분씩 14회기, 고학년 1명은 회기당 1시간씩 7회기로 진행한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중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여름딸기 재배 한계 극복’ 수출시장 공략 나서

무주군이 첨단 냉방 기술을 접목한 여름딸기 재배를 통해 여름딸기 생산 여건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농가 소득 다변화를 물론, 지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여름딸기 재배 농가 20곳에서는 고랭지 기후적 장점을 활용해 ‘고슬’, ‘무하’, ‘미하’, ‘복하’ 등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부터 매일 딸기를 출하(1일 1톤 가량)하고 있다. 딸기는 농협안성농식품유통센터, 홈플러스, CJ, 대형카페 등지로 납품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용 중일성 딸기 안정생산 냉방 기술 시범’ 사업과 ‘수출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연계·추진하며 한



여름에도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고온기 생육 안정화를 위해 병난방 히트펌프와 근권 냉방 패드, 고설재배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여름딸기 수출검역단지 지정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로도 수출하고 있다.

선별 및 포장 등 수출시장의 요구에 맞춘 규격화된 딸기 생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름딸기 ‘고슬’ 품종의 홍콩 수출도 성사시켰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사업 추진

무주군이 치아 형성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6곳 177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6개 읍면의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있으며 검진을 통해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치은염 등을 치료하고 부정교합 등을 진단해 필요한 경우, 병원 연계 치료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치아 홈 매우기, 올바른 잇솔질 방법 등 구강 보건교육 등도 진행한다. 검진과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구강 위생용품 전달에 호응을 얻고 있다.

한영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장은 “이 사업은 치아 형성 시기 아이들의 구강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 나아가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농어촌공 무진장지사 청년창업농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9일, 올해 선발된 청년창업농 16명을 초청해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제도 설명회와 새로 시작하는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창업농의 영농지립기반 마련과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설명회를 통해 생애주기별 주기별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업농과 1: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여 미래 영농설계와 제도개선 등 청년농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는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이양희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1:1 현장상담을 통해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